

ABCX모델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Distress) 연구

In Study on Investigate the Di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Hill's ABCX Model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교 수 장 진 경*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전 종 미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상담팀장 신 유 경

Dept. of Home &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Chang, Jin-Kyung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The Doctoral Course : Jun, Jong-Mi

GeumcheonGu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Team Manager : Shin, Yoo-Ky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family distress to family crisis in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Hill's ABCX model. For this study, the qualitative study with 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8 multi-cultural families(e.g. husband, wife, child and elderly parent). The depth interview contents were marriage process, family relation or family interactions, social adaptation process, and social services needs. Results showed the followings: First, multi-cultural families had multiple distressors so that these distressors made multi-cultural families vulnerable to family crisis. Second, Hill's ABCX model explained the process of family distress to family crisis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that they had few resources(both individual resources and family resources) and even worse they had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ir own multi-cultural family systems. This situation made them difficult to solve their problems and to cope with their distressors. Third, major distress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ere founded in this study. These were different cultural gap, communication difficulties, social discrimination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lack of social support networks. Discussion will address suggestions about effective family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make them resilient to family crisis and help to well-adjusted in the Korean society.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디스트레스(distress), 심층면접(depth interview), 질적연구(qualitative study)

I. 서 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수제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확산되면서 외국인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이민자를 주축으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한국의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에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약 11배 정도 증가하였다. 더욱이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1990년부터

* 주 저 자 : 장진경 (E-mail : jinkyung@sm.ac.kr)

2007년까지 619건에서 31,180건으로 50배의 증가(통계청, 2008)를 보이면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결혼이민자여성과 그 가족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하나로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러한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은 부부갈등요인 및 갈등대처요인에 관한 연구(김오남, 2005, 2005; 박형식, 2006; 손은록, 2004; 신경희, 2004; 안현주, 2006),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문제(박미경, 2007; 홍영숙, 2007), 결혼이민자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스트레스(구차순, 2007; 노하나, 2007; 윤영수, 2001; 이정희, 200),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실태 및 가족문제(방신영, 2006; 임경혜, 2004; 한진수, 2006; 홍달아기, 채옥희, 2006)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 및 위험요인들은 다양하며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형성 초기에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의 다양한 어려움이나 갈등 및 문제들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 다문화가족의 수적 증가와 이들이 갖는 문제의 다양성으로 인해 비영리단체의 활동만으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및 관련 학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Menjivar and Salcido, 2002;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Fagan and Broune, 1994; Abraham, 2000; 양철호 등, 2003; 성지혜, 1996; 강유진, 1999; 이규삼, 2000; Rhee, 1997; 홍기혜, 2000). 그러나 이러한 양적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의 단면적인 실상만을 보여주고 있어 그들 가족이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여 어떤 방법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아내, 남편, 친인척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디스트레스로 규정하고, Hill의 ABCX 모델에 기반하여 각 요인별 특성을 분석한 후 스트레스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자원과 인지를 이용하여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본다. 각 가정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의 방식을 택하여 기존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가 가족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들이 건강한 적응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디스트레스(distress)

가족 스트레스는 가족생활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위협으로서 가족원에 의해 인지되는 어려움의 정도나 정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임정빈 등, 2004). 가족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족생활 중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디스트레스(Distress)와 두 번째는 긴장으로 인해 가족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스트레스(Eustress)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생활사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디스트레스에 집중하여 다문화가족의 부적응 과정을 Hill(1958)의 고전적인 ABCX 모델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Hill(1958)의 ABCX 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원은 가족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과 동일하게 보고,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원과 과정 및 반응상태, 상황 등을 가족원간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있다. 그의 모델은 위기 전 가족 간 대처능력 차이에 따라 가족에게 위기 여부와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인과모델로서 가족 스트레스 이론형성의 기초가 된다(임정빈 등, 2004). ABCX 모델은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응과정을 '긴장을 유발하는 사건의 특성(A)', '가족의 위기극복 자원(B)', '긴장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 및 판단(C)', 그리고 '가족의 위기(X)'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은 A, B, C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X요인의 출연여부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스트레스원(A)은 개인이나 가족체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나 긴장이다. 스트레스원은 야기된 스트레스의 원인과 어려움의 정도를 검토하고 보다 가능한 대처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통제적인 것과 비통제적인 것 그리고 근원이 내적인 것인가, 외적인 것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통제적인 사건과 비통제적인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제적인 사건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예측할 수 있는 발달적인 변화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측되는 기대성과 보편성을 가지며 단기성의 특징을 갖는다. 그와 반대로 비통제적인 사건이란 예기치 못했던 변화를 의미한다. 외적 스트레스 요인과 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체적 또는 기업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외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의미한다. 반대로 내적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적 또는 가족 내의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성격특성이 이에 해당된다(임정빈 등, 2004).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B)은 위기가 오기 전에 본래부터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자원으로서 스트레스의 충격을 최소화

하거나 위기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이 때 가족의 자원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자원뿐 아니라 가족체계로서의 내적자원,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는 지지와 협력 그리고 대처행동 모두를 포함한다(임정빈 등, 2004). McCubbin(1983)은 자원을 가족원의 개인적 자원, 가족체계 자원,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가족원의 개인적 자원은 현실적인 스트레스 인식과 문제의 해결 기술을 용이하게 해주는 인지능력, 가정관리능력, 자립능력, 재정, 교육, 건강 그리고 성격특성 등이 있다. 가족체계 자원은 가족조직의 내부자원을 일컫는 것으로서 가족원들 사이의 의사결정 또는 문제해결능력, 개방된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말한다. 사회적 지지 자원은 사회적 교체를 통한 지지로서 친구, 이웃, 지역사회, 사회기관의 보조 등에서 받는 자원을 의미한다.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C)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야기한다고 지각되는 상황을 포함한 총체적 위기 상황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이 부여하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위기(X)는 가족 스트레스 혹은 위기상황을 말한다. 가족의 위기는 긴장사건의 특성과 그에 따른 고통, 위기에 대한 가족의 극복자원, 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여부에 따라 위기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임정빈 등, 2004).

2. 다문화가족과 디스트레스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갈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위기 및 갈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갈등 및 위기로 인을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주된 스트레스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양숙(1995)의 연구는 가정에서의 의사소통이 가족 간의 감정을 정화시켜주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케 하며, 가족의 변화하는 욕구와 감정을 공유하는데 유용한 기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들은 언어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서로에 대한 불신을 낳기도 하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여성은 소외감과 답답함으로 고통을 받음으로써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본국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어휘를 익히는 수준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 이주한 후에도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임신, 출산, 농사일 등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 간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양철호 등, 2003)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동등한 반려자보다는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데려와 가부장적인 부부관계를 지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선택한 결혼

이민자여성들은 본국에서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역할을 해온 여성들이다(박지영, 2008). 즉 한국인 남편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반면 필리핀 출신 아내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으로써 한국 남편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두드러진 반면, 필리핀 출신 아내는 모계사회에서 성장하여 당당한 여성으로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보이면서 이들 부부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안현정, 2003).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특히 경상권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상권 지역이 갖는 가부장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부부관계에서 결혼이민자여성을 무시하거나, 결혼이민자여성의 본국과 친정가족을 무시하는 경우 별거 및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2008).

많은 결혼이민자여성들이 한국남자와 결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본국보다 한국이 우월하기 때문에 한국남성과의 결혼 후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여성들이 겪는 경제적인 상황은 본국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한국에서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이상의 결혼이민자여성들은 주관적 경제수준을 낮게 지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불만족을 보이고 국제결혼의 동기 중에는 한국이 자국보다 잘사는 나라이며, 보다는 생활과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실망스러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강유진, 1999; 김미희, 2007; 홍달아기 등, 2006).

뿐만 아니라 부부간 의사결정 및 가족갈등의 측면에서 주목할 바는 다문화가족의 부부관계 문제가 시댁 등 친족의 영향력도 크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편의 의사결정권은 자녀양육 보다는 가족경제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며, 가족경제 등에서 시댁의 결정권이 11%를 넘어선다(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2008). 이것은 시댁의 지나친 간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여성과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대부분의 시부모는 며느리 친정국가에 대해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향이 많다. 또한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하기 보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적 차이와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갈등을 심화시키며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한숙(2009)은 시어머니의 며느리 친정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고부관계 만족도 중 신뢰만족이 높을수록 외국인 며느리와와의 대인관계적응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갈등 및 위기에 관련된 연구들은 가족원 개인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갈등요인만을 탐색하는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주 스트레스원이 이들 가족의 부적응 또는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을 Hill의 ABCX 모델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시 서비스의 개입시기와 개입내용 등 다문화가족의 위기개입에 있어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에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추천받은 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8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기관의 추천을 받은 8가족(24명)은 갈등상황이 부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나 각 가족구성원(남편, 아내, 친인척)이 지각하는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이 긴장감을 주는 경우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하며 수동적인 적응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대상가족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결혼을 지속한 가족, 둘째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가족, 셋째 확대가족을 포함하거나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로 확대가족을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나라 가족 형태가 핵가족 중심이기는 하나 확대가족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소통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다문화가족(2가족)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¹⁾. 이를 토대로 각각의 가족구성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심층면접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심층면접자는 대상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충분한 공감과 수용을 통해 신뢰로운 상황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특히 연구대상가족들로 하여금 안정된 분위기에서 라포형성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관련 사업을 담당하며 이미 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적합한 연구대상을 소개받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은 센터 내의 상담실 혹은 참여가족의 집 등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1차 면접은 연구대상가족과 라포형성을 하기위해 3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2차 면접은 평균적으로 80분이 소요되었고, 필요에 따라 자료의 보완 및 보충을 위해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2008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진행되었고, 면접내용은 결혼과정·가족관계·사회적응과정 및 사회서비스욕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접의 내용은 연구대상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을 하였으며,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도 연구자 3인 외 5인과 더불어 개념을 확인하고 분류하며 명확화하기위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심층면접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까지도 분석결과에 반영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가족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디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여성과 그 가족(시부모, 친정식구, 자녀 등), 총 8가족 24명을 면접하였다. <표 1>은 본 연구대상가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표 1>과 같이 [가○○가족]은 여성이 필리핀 출신으로 한국인 남성과 중매결혼하였고, 결혼지속연수는 4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30세, 남편은 41세, 시누이는 43세이고, 아내와 시누이는 고졸, 남편은 대졸이다. 종교는 아내가 가톨릭, 남편이 불교, 시누이는 없으며, 남편이 제조업으로 월 107만원의 가계소득이 있다. 현재 안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다. [로○○가족]은 필리핀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중매결혼으로 결혼지속연수는 8년이다. 아내의 연령은 46세, 남편은 56세, 시부모는 76세이고, 아내는 초대졸, 남편은 초등학교 중퇴, 시부모는 무학이다. 종교는 아내와 남편이 가톨릭, 시부모가 불교이다. 직업과 월 소득을 살펴보면, 아내는 영어강사로 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어 총 가계소득은 300만원이다.

[후○○○○가족]은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결혼지속연수는 1년이다. 연령은 아내가 28세, 남편은 38세, 시부모는 60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초졸, 남편은 고졸이다. 종교는 남편과 시부모가 불교이며, 직업은 남편이 회사원이고, 가계소득은 월 150만원이다. 현재 거주지는 안산이며, 자녀는 남자아이 1명이다. [이○○가족]은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중매결혼으로 결혼지속연수는 2년이다. 연령은 아내가 25세, 남편이 40세, 시부모가 74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중졸, 남편과 시부모는 고졸이다. 남편은 기술자이며, 월 250만원의 가계소득이 있다. 현재 부천에 거주하며

1) 본 연구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한 이유는 면접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질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표 1> 연구대상가족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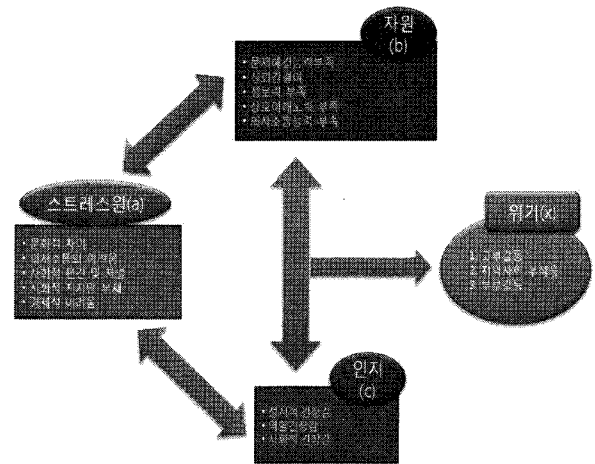
사례	관계	출신국	연령	결혼지속연수	학력	종교	직업	자녀		결혼방법	가계소득 (월, 만원)	거주지
								남	여			
카○○가족	아 내	필리핀	30	4년	고졸	가톨릭	-	1	중매	107	안산	
	남 편		41		대졸	불교	제조업					
	시누이		43		고졸	-	-					
로○○가족	아 내	필리핀	46	8년	초대졸	가톨릭	강사	1	중매	200	안산	
	남 편		56		초중퇴	가톨릭	건설업					
	시부모		76		-	불교	-					
후○○○○가족	아 내	베트남	28	1년	초졸	-	-	1	중매	150	천안	
	남 편		38		고졸	불교	회사원					
	시부모		60		-	불교	-					
이○가족	아 내	베트남	25	2년	중졸	가톨릭	-	1	중매	250	부천	
	남 편		40		고졸	가톨릭	기술자					
	시부모		74		고졸	가톨릭	-					
강○○○○가족	아 내	필리핀	48	12년	대졸	가톨릭	강사	1	1	중매	650	부천
	남 편		51		-	가톨릭	공무원리인					
	자녀		12		5학년	가톨릭	학생					
한○○가족	아 내	베트남	28	1.3년	무응답	기독교	-	1	중매	-	충주	
	남 편		42		대졸	기독교	-					
	시부모		79		초중퇴	기독교	-					
최○○가족	아 내	베트남	23	3년	고졸	불교	-	1	중매	-	충주	
	남 편		46		중졸	-	목수					
	시부모		76		-	가톨릭	-					
리○가족	아 내	중국	26	1년	중졸	가톨릭	-	1	중매	300	충주	
	남 편		39		고졸	가톨릭	목수					
	시부모		69		-	가톨릭	-					

자녀는 1명이다. [강○○○○가족]은 필리핀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중매결혼하여 12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다. 연령은 아내가 48세, 남편이 51세, 자녀가 12세이고, 학력은 아내가 대졸, 남편은 무응답,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내는 영어강사로서 월 4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남편은 공무원리인으로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월 평균 총 가계소득은 650만원이다. 현재 부천에 거주하며,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가 있다. [한○○가족]은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중매결혼으로 결혼지속연수는 1년 3개월이다. 연령은 아내가 28세, 남편이 42세, 시부모는 79세이며, 학력은 아내가 무학, 남편이 대졸, 시부모는 초등학교 중퇴이다. 종교는 가족원 모두 기독교이다. 현재 충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는

여자아이 1명이다. [최○○가족]의 가족은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중매결혼으로 결혼지속연수는 3년이다. 연령은 아내가 23세, 남편이 46세, 시부모가 76세이며, 학력은 아내가 고졸, 남편이 중졸, 시부모는 무학이다. 종교는 아내가 불교, 시부모가 가톨릭이다. 남편은 목수이고, 가계 월 소득은 없다. 현재 충주에 거주하며, 1명의 자녀가 있다. [리○가족]은 중국 출신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중매결혼으로 결혼지속연수는 1년이다. 연령은 아내가 26세, 남편이 39세, 시부모가 69세이며 학력은 아내가 중졸, 남편이 고졸, 시부모는 무학이다. 종교는 모두 가톨릭이고, 남편은 목수로서 월 가계소득은 300만원이다. 현재 충주에 거주하며, 1명의 자녀가 있다.

2. 다문화가족 디스트레스의 ABCX모델 요인별 분석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생활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위협으로서 가족원에 의해 인지되는 어려움의 정도나 정서반응이다. 가족이 당면하는 생활변화나 생활사건은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정서반응 및 스트레스의 정도는 차이가 나타난다. 다문화가족은 가족체계와 내·외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갈등과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가족이 직면하는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큰 긴장과 불안이 증가되는 경우를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라고 정의하며 이는 가족체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이 유익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하고 건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임정빈외, 2004).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ABCX모델에 근거하여 총 8가족의 위기상황 요인을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각 요인별로 정리하였다.



<그림 1> 다문화가족 디스트레스의 ABCX모델 요인분석

1)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원(A)요인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를 ABCX 모델에 기반을 두어 살펴본 결과 8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스트레스원은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사건 혹은 거기에 수반되는 곤란성(임정빈 등, 2004)으로서 본 연구대상가족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사회적 지지망 부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갈등요인을 파악한 강유진(1999)외의 연구들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다문화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갈등요인을 파악한 강유진(1999)외의 연구들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다문화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기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술직히 맘에 드는 면은 없어요 왜냐하면 게을러 가지고, ○○○사람들이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어지러뜨려도 그냥 있는 거예요. 설거지도 않고 내가 치우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빨래도 내가 하고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 흥이지만 지금도 밥 먹고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설거지를 잘 안 해요. 집에 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고쳐줬어요. 매일매일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기후가

다르니까 한국의 겨울은 엄청 추운데 애들도 막 벗겨놓고, 요즘에도 그래요. 그건 아직 못 고쳤어요.[리○가족 남편]

지금도 한국말 때문에 힘들어요 그냥 막 다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면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거 말고 ○○○랑 비교하면 여기서 힘든 건 없어요. 왔다갔다 청소하고 음식해요. 빨래하고 다른 거 없어요. 일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생각하면 힘들어요 또 남편 일도 힘들어요. 지금 남편 나이 30대 후반인데 내년에 애기 낳아야하고 키워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보내주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요.[이○가족 아내]

와이프하고 처음에 음식 먹을 때 손으로 먹으려고 해가지고 정말 당황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거든요. 또 외국인들은 화장지를 사용 안 해요. 대야에 물 받아 놓고 들어가더라고요. 손으로 쓰니까.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화장지를 안 써요. 계속 세숫대야에 물 받아 놓고(제 와이프는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 처음에는 더 많이 그랬죠.[카○○가족 남편]

장모님하고 처형하고 한국에 와서 6개월 살았어요. 그 나라에서 여기 나올라 해도 10원짜리 한 푼을 안 쓰고 나와 여기서 내가 보내주면 이제 고놈 갖고 동사무소가 가면사무소 가고 그러지 지그 나라 돈으로 안 쓴다고..... 한 100달러만 보내 주면 100달러면 현재 한 10만원밖에 안돼요. 그거 보내주면 2~3식은 아무 말 없이 먹고 살아요.[최○○가족 남편]

2) 각각의 요인을 정리함에 있어 8가족의 사례를 모두 분석하였으나 내용의 중복됨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상세하게 제시될 2사례의 내용은 인용하지 않기로 한다.

2)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자원(B)요인

ABCX모델에서 자원은 가족의 적응능력 및 가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들(임정빈외, 2004)을 의미한다.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들은 대부분 가족체계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자원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은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신뢰감 결여’, ‘정보력 부족’, ‘상호이해능력 부족’,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 긍정적 자원보다는 부정적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가족체계자원에서 다문화가족에게도 가족체계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부부기간에 싸우면 나중에 불러갖고 내가 물어보지.“어쩌다 그랬냐?” 신랑은 짜증낸다고 그러는데 “내가 짜증냈냐?” 그러니까 짜증 안 냈대. 근데 “듣는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여. 말도 안 되는데 문화도 다르니 밥 먹을 때고 애들이랑 밖에 나갈 때도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해도 아직 안 고쳐지는 게 많고 포기하는 것도 많아졌어.[리○가족 시부모]

시어머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 귀가 좀 잘 안 들려요. 좀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크게 말을 해야 돼요. 좀 힘들어요. 나 어머니 귀. 잘 몰라. 듣는 거 아니면 귀가 안 들려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이○가족 아내]

나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잘해준다고 잘 해주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지만은 외국서 와가지고 성격 안 맞아가지고 그런대로 내가 많이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도.....아.....정말 안돼요.[카○○가족 남편]

내가 웬만하면 싸울 시간 있으면 술 한 잔 먹고 자버려요. 안 좋아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지금은 성질 많이 죽었어요.[리○가족 남편]

요즘에는 와이프가 자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아마 친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텐데 이제 막 온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사실 우리 집도 넉넉한 건 아닌데 다 퍼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허덕거리죠. 참.....어쩔 때는 너무 한다 싶어요. 한 마디로 친정식구들이 든든하거나 미덥지 못하죠. 제가 항상 도움을 줘야하는 처지니까요. [최○○가족 남편]

3)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인지(C)요인

인지는 ABCX모델에서 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과 판단(임

정빈 등, 2004)으로서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들의 경우 부정적인 인지로 인하여 위기상황이 촉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이 스트레스원에 대해 느끼는 지각 또는 판단을 긴장감으로 살펴볼 때 ‘정서적 긴장감’, ‘역할긴장감’, ‘사회적 긴장감’으로 인지요인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정서적 긴장감’은 스트레스원에 의한 감정적인 불편함과 괴로움으로 주로 ‘어머니와 아내의 빈번한 갈등에 괴롭다.’, ‘시부모는 항상 혼내기만 하기 때문에 말도 하기 싫다.’ 등이 포함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할긴장감’은 가정 내 역할기대, 역할수행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으로서 시부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무례하고 버릇이 없다.’, ‘시어머니는 항상 혼내고 지적하기만 하는 존재이다.’, ‘낙후된 나라에서 와서 아이들 양육을 맡길 수 없다.’ 등이 포함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긴장감’은 사회적인 편견 혹은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감, 우려, 불안감으로서 ‘출신국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낙후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정상적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다.’, ‘위장 결혼대상자가 대다수다.’ 등이 포함되었다.

화를 버끔버끔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얼굴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어서 그게 여기서서 며느리 입장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고 어른들 앞인데도 그러고 있으면 버릇없어 보이지. 이모님들이 할머님들은 오시면 “먼저 인사를 하고 접대도 하고 그래야지 엄마가 그분들 앞에서 민망하다. 네가 성을 내고 그러면 상대가 싫어하 나보다고 그런 기분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좀 참아라.” 해도 뭐가 이렇게 변하질 않아요. 얼마나 고집도 센지.....그 나라는 그런가봐요. 여기보다 좀 못 사는 나라라서 그런지 아주 버릇이 없어. 처음에는 한국말도 안 쓰려하고 계속 자기네 나라말만 하려고 하니..... 아휴 말도 마라. [강○○○○가족 시부모]

말은 2년 이래도 남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아직 멀었어요. 살다보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근데 처음부터 답답하게 생각을 안했죠. 왜냐하면 문화도 틀리고 나도 그 나라 말 모르고 그런데 좀 알수록 기대치가 큰 거예요. ‘왜 알만한데 못할까?’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그렇죠. 제가 출근하고 나서 밖에 외출도 하는가본데 사람들이랑 잘 안 어울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친구들 모임에 같이 나가 자고도 했었는데 싫어해요.[로○○ 가족 남편]

저는 친구랑 만나고 싶은데 애들 재우고 가끔 밖에 나가서 친구랑 만나고 싶은데 남편은 되도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싫고 저는 싫어요. 싫어하는 거 아

데도 저는 가끔 나가요. 제가 외출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회사 옳기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봐요. 저는 여기로 이사 와서 더 외롭고 힘이 드는데 갑자기 너무 불안해하는 거 같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고 얘기하는데 "네가 뭐가 힘들어?"가끔 이렇게 되 가끔 힘들어 남편이랑 사는 거 너무 힘들고 가끔 후회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처음이랑 남편이 너무 달라.[리○가족 아내]

내가 이해를 하고 같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성질이 개떡 같아 가지고 먼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말도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어른들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찬바람이 쐬뽀 불어요. 어른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아휴.....[카○○ 가족 남편]

내가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는 그니까 언어는 단순하게 언어는 가르쳐도 문화는 그쪽의 문화가 우리보다 낫다고 하면 가르치겠지만 완전히 너무 후진 쪽에 가있으니까 문화 쪽에서는 뭐 음악이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생활저기가 틀리기 때문에.....(한국어) 많이 우월하죠.[최○○ 가족 남편]

4)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의 위기(X)요인

ABCX모델에서 위기요인인 X요인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자원, 인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가족스트레스 혹은 위기 상황(임정빈 등, 2004)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 다문화가족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위기상황은 '고부갈등', '지역사회 부적응', '부부갈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는 안 좋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하니까. 동네 나가면 유모차 아기 엄마들이 많아요. 우리 아기 "안녕하세요?"하는데 옆에서 같이 유모차 끌면서도 대답 안 해요. 외국여자는 그냥 무시하고 놔두자는 거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이후로는 인사 안 해요. 한번 했는데 인사 안 받으니까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로○○ 가족 아내]

처음에 우리 안 싸웠어요. 지금 결혼 한지 4년 됐는데 사람이 틀려요. 나는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와이프는 말 들어야해", "이렇게 말도 없이 할거야?"이래요. ooo는 안 그래요. 남편이 같이 하고 서로 도와주고 막 그래요. 한동안은 그냥 집에서 망가지는 것도 많았어요. 화나면 막 그래요. 저는 "내 살림 왜 부시냐?" 시누한테도 다 얘기했

어요. 큰 형도 하도 싸우니까 왔었어요. 왜 이렇게 사는 지..... 자꾸 싸워요. [리○가족 아내]

난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큰며느리는 뭐 못하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XXXX도 해봤지만 그래도 틀리고 오도 안하고 말도 안하고 가버리더라고 내가 훈계해도 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몰라요. 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러저러 꿀꿀꿀 께 참아야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강○○○○ 가족 시부모]

본 연구의 대상가족을 Hill의 ABCX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디스트레스과정은 <그림1>과 같다.

3. 다문화가족 디스트레스의 ABCX모델 과정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중 위기상황이 두드러지는 2가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원(A), 자원(B), 인지(C), 위기(X)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후○○○○ 가족

[후○○○○ 가족]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중매 결혼하였다. 1년의 결혼생활동안 시부모, 시댁조카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임신 1개월째이다. 아내(28)는 베트남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을 동경하였고 중개업체와의 맞선과정을 통해 지금의 남편(38)을 만났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수차례 실망을 경험한 남편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중개업체를 찾았고 맞선을 거둬주며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후○○○○의 시어머니(60)는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동안 그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처음부터 외국인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겨 그다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후○○○○과 남편의 결혼은 시부모에게 전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중개업체가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결혼 이후 시부모를 비롯한 후○○○○ 가족은 어쩔 수 없는 국제결혼을 수용하기로 선택하지만 시부모에게는 마냥 서툴게만 보이는 며느리의 행동과 원활하지 못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무례하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였다.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기관을 통해 한국어교실에 참여하였지만 친구들과의 교류 속에서 얻는 정보로 친구의 결혼생활과 본인의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진한 나의 아내가 못된 친구들에 의해 나쁜 물이 든다.' 는 생각을 갖게 하여 바깥활동을 금지 당했다. 아내의 한국어교실 참여를 제한하면서 남편은 본인이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취미를 공유하고자 수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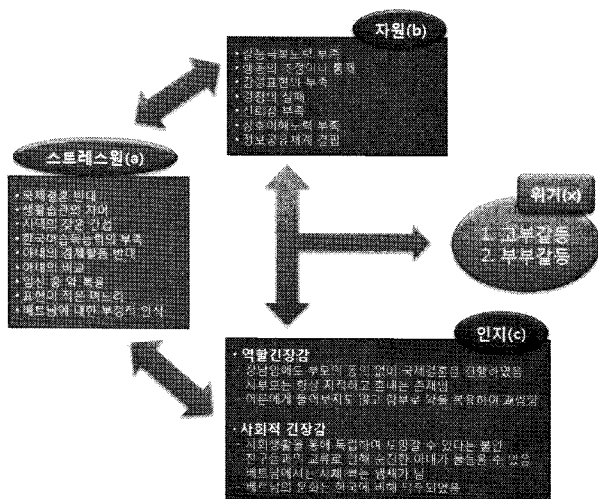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주진 않고, 예민하고 부정적이지만 한 아내의 태도는 남편의 의욕을 좌절시켰다. 반면 친정아버지가 병환 중에 있고, 국제결혼 할 당시 기뻐하던 친정부모를 떠올리며 경제적인 원조나 베트남에 방문하기를 요구하였지만 이 역시 좌절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활동을 반대하는 남편과 시부모의 태도에 아내의 불만은 더욱 쌓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의 임신은 온 가족이 공유하는 기쁜 소식이었으나 시부모나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감기약을 복용한 아내의 행동은 후○○○○ 가족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남편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인공유산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여 그렇다면 그로 인해 상처받을 가족을 생각하며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후○○○가족을 Hill의 ABCX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타난 디스트레스과정은 <그림2>와 같다.

(1) 고부갈등(X-1)

후○○○○ 가족의 사례에 ABCX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출된 첫 번째 가족의 위기는 고부간 갈등이었다. 후○○○○은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식구를 무섭다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었으며, 가족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시어머니가 깊이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생활에 답답해하였다. 현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스트레스원(A)은 ‘임신 중 약 복용’과 같은 비통례적인 사건과 적응 상에 나타나는 ‘국제결혼 반대’, ‘생활습관의 차이’, ‘시댁의 잦은 간섭’, ‘한국어습득능력의 부족’, ‘아내의 경제활동 반대’, ‘아내의 비교’, ‘표현이 적은 며느리’,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일시적이고 내·외적인 요인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원의 해소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족의 자원(B)은 상당히 취약하였고 인지(C) 역시 부정적이었다. 후○○○○과 시부모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시부모는 며느리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으며,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이 시부모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놓쳐 버리게 하여 오해는 더욱 깊어졌다. 이로 인해 시부모와 며느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스트레스 원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도 시부모는 베트남을 방문한 후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표현하며, 상당히 낙후되어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교실에 참여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고자 시도하는 후○○○○의 행동은 ‘도망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제한되었으며, 바깥활동을 좋아하는 며느리의 행동은 철없게만 비춰져 시부모는 잦은 간섭을 하였다. 그러므로 후○○○○에게 시어머니는 항상 혼내고 지적하는 존재로서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서로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기대조차 하지 않으며 고부관계의 골은 깊어져 가고 있었다.

(그림 ○○○씨는 시어머니나 시댁식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시댁요? 지금 머리 복잡해요. (복잡해요?) 같이 살아서 무서워요. (같이 사는 게 무섭다고?) 네. 아, 비밀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만약에 시어머니 아실까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기, 근데 언니 귀 약 먹어도 괜찮아요? (안돼요) 저번 주에 먹었어요. (저번 주였어요? 지금 얼마 됐어요? 얘기?) 한 달. 한 달 (한 달 됐어요? 임신하면 약 먹으면 안돼요. 감기약도 안 먹어요.) 아기 나중에 이상해지니깐 병원 갔어요. 지금.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한 달됐고 아직 어려서 몰라요. 조금 더 있어야 되요. (중간생략) (베트남 부모님들은 여기 한국에 시집간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아해요. 근데 (베트남은) 너무 멀어요. 베트남 아빠 아파서 많이 보고 싶어요. 다리가 많이 아파요. 베트남에 가보고 싶어요. 신랑한테 이야기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근데 시어머니 안 좋아 해요. 그것 때문에 싸움했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화만내서 싫어요. [후○○○○]



<그림 2> 후○○○○ 가족의 디스트레스 과정

같이 사는데도 아들이 그랬어. 가족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국제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빠도 모르게 큰아버지께 장남이다 보니까 인자 얘기를 했지. 그래갖고 간다고 해니께 형식적인 건 준비된 거지. 그래갖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됐어. 근데 어제도 시끄러웠어.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는 내 생각이랑 다른지 몰라도 거기서도 임신하는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치과가고 코 아파서 병원가고

약 찾았다 약 먹고 그래갖고 어제도 내가 좀 야단을 쳤어.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 아니. 그렇잖아? 그럼 엄마 내 생각은 이러한데 어머니가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하면 나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베트남)는 한참 멀었어. 아직 멀었지. 거긴 뜨겁고, 문화적인 것도 옛날 우리 60년 세대에 어려웠듯이 베트남이 어렵더라고. 내가 이제 한 3박 5일 아니 4박 5일 갔는데 캄보디아 거기 갔는데 거기는 남쪽으로 얘기하면은 벼를 뒤 삼부작으로 먹고 뭐 북쪽에는 이부작을 먹는다. 근데 어떤 쪽에는 냄새가, 시체. 말하자면 한국에 왜 물기 비가 많이 오면 습한 냄새가 나잖아. 거기다가 뭐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많고 습해. 한국마냥 이렇게 마르지 않고 땅이 습해. 그리고 거기는 안적도 발전되려면 멀었지. (중간생략) **(현재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요?)** 안다니죠. 자꾸 직장 다닌다그러고 심심하다 그러고 인제 친구들하고 자꾸 나가고 그래. 그게 힘들어요. 베트남 끼리 모여서 나빠질까봐. 그게 걱정스럽고 학교 같은데 가면은 지들끼리 얘기해서 신랑 얘기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우리 신랑은 어떡하' 이러면 사람이 호기심에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시부모]

(2) 부부갈등(X-2)

후○○○○ 가족의 사례에 ABCX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출된 두 번째 가족의 위기는 부부갈등이었다.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였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원인은 '시댁의 잦은 간섭', '생활습관의 차이', '아내의 경제활동 반대', '아내의 비교', '임신 중 약 복용', '한국어습득 능력의 부족' 등과 같은 내적이고 일시적인 스트레스원(A)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내의 서투른 행동을 지적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아내의 불만을 증가시키며,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후○○○○은 결혼 과정에서부터 결혼이민자여성 친정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자 사회활동을 원하였으나 남편은 아이의 양육을 우선하며 반대하였다. 남편을 설득하고자 다른 다문화가족을 예로 제시하였으나 남편에게 이러한 행동은 철없는 아내의 비교로 느껴져 바깥출입 및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제하였다. 이에 대처하는 남편과 아내의 자원(B)과 인지(C)는 상당히 취약하였다. 서로에 대한 신뢰 및 상호이해가 결여되어 있었고, 문제해결방식도 비(非)일치하였다. 남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베트남 언어 습득과 공통취미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아내의 예민하고 부정적인 반응은 남편으로 하여금 갈등상황이 지체되거나 전혀 해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답답함을

토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반복으로 후○○○○과 그의 남편은 서로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갈등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 동안 힘들었던 점이 학원만 갔다 오면 비교를 하니깐. **(같은 반 잘 하는 사람하고,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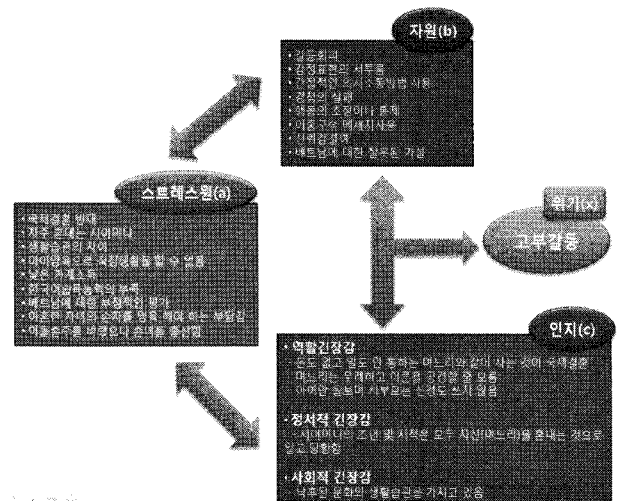
아니, 선생님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저도 느끼는 게 학교에 갔다 오면 항상 틀려져요, 학교만 갔다 오면 2주나 3주를 가요, 갔다 오면 그것도 학교 갔다 온 날부터 그것만 자꾸 비교를 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은 좋은데 저 집은 뒤를 하는데, 돈을 얼마 갖다 주고 한다, 그리고 집 같은 것도 계속 비교하니깐 (중간생략) 최근에는 직장을 다니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학교 갔다 오면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직장 다니는데 하면서 비교하니깐..... 그리고 혼자 직장을 다닌다고 하니깐 그게 문제인거죠, 만약에 얘기가 있고, 얘기가 크고 하고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도 없고 안 된다. 얘기 낳고, 어느 정도 크고 다니고 하면 그 때 직장을 다니던지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도 말 했는데 또 학교 갔다 오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결국은 직장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나날이 스트레스 받다가 직장 다닌다고 하고. 한 동안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집에 있으면 향수병 걸릴까봐 그것 때문에 학교 보내고, 바로 와라, 항상 전화를 했죠. **(그럼 한국어교실을 다닌 이후에 한국어실력은 향상되었나요?)** 확인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을 확인을 하니깐 짜증을 한 번, 두 번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짜증을 내는데 2, 3번 물어보면 짜증을 내는구나, 한 번 말하고 이해를 시켜주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아'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가 없으면 제가 한 번 물어보고, "문제가 있냐" 그러면 "무슨 고민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민 있냐?" 물어보면 짜증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가르치니까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변화가 있으면 제가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면 좋은데 항상 보면 '원점이에요. 원점이에요.' 원점이니깐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안 보내려고 해요. (중간생략) 어제는 또 아무런 상의 없이 코약을 먹어가지고 그게 좀 걸려서 불안하고 하니깐 만약에 첫 얘기인데 잘못 되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지는데. 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니까 얘기가 유산하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그게 좀 걸려서 제가 얘기가 첫 얘기인데, 요즘 고향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남편께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힘들어 보이면 얘기를 하고, 해결하고 뭐가 힘든지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같이 바람 쐬러 나가다가도, 가끔 얘기가 갖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 사다주고 하면 또 안 먹고, 그러니까 힘들죠.[남편]

이상과 같이 후○○○○ 가족의 디스트레스과정은 ‘국제 결혼에 대한 반대’, ‘생활 습관의 차이’, ‘한국어습득능력의 부족’, ‘시댁의 잦은 간섭’, ‘아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반대’, ‘아내의 비교’, ‘임신 중 약복용’, ‘표현이 적은 며느리’,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비통례적이고, 일시적이며 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원(A)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후○○○○ 가족의 태도는 ‘갈등극복능력 부족’, ‘행동의 조정이나 통제’, ‘감정표현의 부족’, ‘경정의 실패’, ‘신뢰감 부족’, ‘상호이해능력 부족’, ‘정보공유체계 결핍’ 등으로 가족체계자원과 사회적 지지자원(B)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과 상호작용하는 인지(C)에서도 ‘베트남은 낙후된 도시이다.’, ‘사회활동을 통해 도망칠지도 모른다.’, ‘친구들과 다니면서 나쁜 물이 들었다.’, ‘시부모는 항상 혼내고 지적하는 존재이다.’, ‘아내가 변화하지 않고 항상 원점이다.’ 등의 ‘역할긴장감’, ‘사회적 긴장감’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원(A)에 대처하는 취약한 자원(B)과 부정적 인지(C)의 상호작용은 후○○○○ 가족의 고부갈등, 부부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가족의 위기(X)를 촉진시켰다.

2) 한○○ 가족

[한○○ 가족]의 베트남 여성인 한○○(28)과 그의 남편(47)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년 3개월 전에 중매결혼을 하여 1명의 자녀가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과 처음부터 국제결혼에 반대하였던 시부모(79)는 결혼 후에도 고부관계 속에서 잦은 갈등이 있었다. 결혼생활을 지속한 지 1년 3개월 이상이 되었으나 며느리의 미숙한 한국어실력은 시부모와의 관계에 오해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시부모의 억양, 행동, 표정은 ‘항상 나를 혼내는 시어머니’와 ‘무례하고 버릇이 없는 며느리’라는 인식으로 고부간의 갈등을 강화시켰다. 자녀양육 면에서 손자를 원했던 시부모의 기대와 달리 손녀를 출산한 이후 시부모가 느끼는 실망감과 서운함으로 인해 한○○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며느리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원으로서 인터뷰 중간에도 끊임없이 시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혼한 큰 형님의 자녀(조카)를 시부모가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한○○ 가족에게 버거운 과업으로 여겨졌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남편은 인생과업을 해결했다는 후련함과 동시에 갑작스러



<그림 3> 한○○가족의 디스트레스 과정분석

운 실적을 당했다. 남편은 가계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본인의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이라는 스트레스사건만으로도 벅찬 남편에게 시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갈등은 남편으로 하여금 항상 불안과 긴장의 연속선상에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자원은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역량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고부간의 충돌로 인한 속상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걱정,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빈번한 긴장으로 인한 답답함 등은 이들 가족에게 고부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러나 가족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을 고착시켰다. 한○○ 가족을 Hill의 ABCX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타난 디스트레스과정은 <그림 3>과 같다.

(1) 고부갈등(X)

[한○○ 가족]의 사례를 ABCX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족이 경험하는 위기는 고부갈등이었다. 고부갈등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원(A)을 살펴보면, 시부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제결혼은 ‘돈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여자’를 데려오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며느리에 대해 탐탁지 않았던 불편함에서 기인하였다. 게다가 자녀양육을 우선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하며, 수용되지 않는 문화차이는 이 가족의 주요한 스트레스원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인지하였다. 결혼이민자여성은 미숙한 한국어실력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이용하여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일관되게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항상 혼내는 사람으로 인지(C)하고 있었다. 현재 한○○ 가족 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대화가 단절되었고, 서로의 출입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집을 나가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의 자원(B)은 극히 부족하였다. 시어머니는 베트남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통해 베트남은 낙후된 문화를 가진 곳으로 추측하며 그것을 사실로 알고 며느리에 대한 태도에 반영시켰다. 며느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들이나 다른 가족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하려고 하며, 며느리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 의견 등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더욱 불편하게 되었다.

(처음에 아드님이 국제결혼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반대했죠. **(왜 반대하셨어요?)** 말도 안통하지 뭐, 돈도 없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기 가서 폐품 같은 애를 데려오느라고 한국여자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들었어. 회사에 돈 가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말을 안 해. 말을 잘 안 해 가지고 내가 어디 갔다가 오후에 와도 "인자 오세요" 둘러다 보는 법도 없고 통 그런 게 말이 없어. 그리고는 어디 갔다가 들어와도 애랑 드러누워서 책 같은 거 보고 있어도 일어나는 것도 없고 고대로 앉아있으니까 그럴적에는 서운해. 암만 문화는 틀려도 어른 공경하는 거는 똑같잖아. 부모는 똑같잖아? 저도 집에서 어른 공경하고 그럴 거잖아. 말만 틀리지. 그런데 그걸 안 해. 그 때는 좀 서운해. 그게 제일 나는 불만이야. 이젠 만성이 됐어. 아주 인제 만성이 됐어. 워낙 시켜도 듣지를 않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가 차차 '나중에 깨닫고 절약하고 하는 거를 알겠지' 하면서 그만 뒤야지 자꾸 신경쓰다보면 내가 머리가 아파.[시부모]

(아내는) 살림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마음에는 아직 안 들어. 나는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직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 댄에는 혼내는 것인 줄 알고 당황하더라구. 잘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빠지고 이게 지금 1년 넘었는데 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예요. **(남편 분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 어떻게 중간에서 진짜 아휴 그럴 때는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쪽 편을 들 수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시어머니 분이랑 남편 분하고 이야기를 자주하세요?)** 우리 엄마하고 이야기는 많이 안 해. 엄마가 나한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내는 나한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나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내 분도요?)** 네,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엄마가 뭐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혼 내키는 거라 생각해서 그런지, 엄마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혼내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듣더라고. [남편]

이상과 같이 한○○ 가족의 디스트레스과정은 '국제결혼 반대', '자주 혼내는 시어머니', '생활습관의 차이', '아이양육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음', '낮은 가계소득', '한국어습득능력의 부족', '베트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이혼한 자녀의 손자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감', '아들 손주를 바랬으나 손녀를 출산함' 등의 내·외적이고 비통례적인 사건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스트레스원(A)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대처하는 한○○ 가족의 태도는 '갈등회피', '감정표현의 서투름', '간접적인 의사소통방법 사용', '경청의 실패', '행동의 조정이나 통제', '이중구속 메시지 사용', '신뢰감 결여', '베트남에 대한 잘못된 가설' 등으로 가족체계자원(B)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자원과 상호작용하는 인지(C)에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혼내고 꾸중하는 존재다.', '며느리는 무례하고 버릇이 없다',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에 집을 나가고 싶을 정도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답답하다.' 등의 '정서적 긴장감', '역할긴장감', '사회적 긴장감'이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원(A)에 대처하는 자원(B)이 취약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인지(C)와의 상호작용은 한○○ 가족의 고부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X)를 촉진시켰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부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다문화가족의 주(主) 스트레스원이 부적응 또는 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을 Hill의 ABCX 모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8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자원과 인지의 과정을 거쳐 위기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인과적인 흐름을 ABCX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는 단일한 스트레스원에 의한 영향이 아닌 다양한 스트레스원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극심한 긴장과 불안이 가족의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갈등 및 저해요인을 파악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단순히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상대적인 빈도 및 통계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의 규명이 단편적이었고, 디스트레스 요인들의 인과성과 상호작용을 통한 복합성을 파악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질적연구를 통한 사례분석은 기존 연구결과의 한계를 보완하며, 스트레스원, 자원, 인지의 복합적인 흐름은 다문화가족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둘째, 갈등상황이 두드러지는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를 ABCX모델에 적용하여 상호작용을 파악한 결과 다문화가족이

가진 자원(b)과 그들의 인지(c)가 디스트레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갈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가족은 가족의 개인자원, 가족체계자원, 사회적 지지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스트레스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가족의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유사한 과정을 통해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적응과정을 거치지만 건강한 적응을 보이는 다문화가족과 본 연구의 대상가족이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가족스트레스의 주된 스트레스원은 원활하지 못한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사회적 지지망 결여, 경제적 어려움으로서 대부분 적응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내적인 경향의 스트레스(stressor)였다. 이로서 야기되는 가족 체계 내의 불신과 긴장은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는 가족의 적응력과 응집력을 약화시키며 갈등관계 및 관계충돌을 예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트레스원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현실적으로 결혼이민자여성의 의지와 노력이 핵심이 될지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남편의 배려와 기다림, 시부모의 문화 차이 인지 및 기다림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나누어야 할 역할이라 사료된다.

넷째, 다문화가족이 디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자원(B)은 문제해결능력, 신뢰감, 정보력, 상호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대상 가족들은 이에 대한 인지(認知)와 활용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가족체계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의 참여가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이 스트레스원에 대해 지각하는 인지(C)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반응 및 편견으로 인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긴장감’, ‘역할 긴장감’, ‘사회적 긴장감’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인지는 스트레스원에 대해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각하게 함으로써 충격을 최대화하고 위기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초기에 형성된 부정적인 편견,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부정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는 편향된 사회적 관점을 자제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건강하게 적응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가족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사한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적응이 자원이나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ABCX모델의 기본 가정을 검증하는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ABCX모델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위기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제공 및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학문적, 사회적인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를 파악함에 있어 결혼이민자여성만을 개인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다문화가족 전체를 한 단위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를 파악함에 있어 결혼이민자여성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어려움과 부당함 등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는 각 구성원들의 입장과 배경에 따라 너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여성의 관점만으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디스트레스에 대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편향된 관점만을 양성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적응을 지원하고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며 각 구성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다문화가족의 디스트레스 요인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가족관계 내적인 것으로서 교육이나 상담의 참여로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즉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은 가족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디스트레스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원이 부족하여 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수용수준도 상대적으로 약하였으므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관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 및 상담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의 충실함과 더불어 이들에게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근접성도 갖추어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 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희(2007). 결혼 이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인식 : 베트남 이민여성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연구논총*, 28(2), 183-207.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의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미(2003). *HIV/AIDS 감염인의 삶의 과정 : 근거이론 연구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2005).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식(2006).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록(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여성들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현(2009).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과 필리핀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대응: 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철호 · 김영자 · 손순용 · 양선화 · 신봉관 ·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 127~149.
- 윤영주(2001).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2004). *가정관리학*. 서울: 신정.
- 조한숙(2009). 농촌노인과 외국인며느리의 고부관계 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경 · 전종미 · 신유경(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200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7-64.
- _____ (2009). 심층면접을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21-38.
-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46(1), 141-181.
- 최지현(2006). 발달장애유아 아버지와 비장애 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행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통계청. <http://Kosian.nso.go.kr>.

한국염(2008). 결혼이민자여성 인권백서: 적응과 폭력사이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홍달아기 ·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 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cCubbin, H. I., Patterson, J., & Wilson, L. R(1983).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St. Paul, MN: Univ.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Satir, V(1972). *성문선역*(2004). *사람만들기*. 서울: 홍익제.

□ 접수일 : 2009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06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8월 03일